



신현배 | 시인, 아동문학가  
(4201708@hanmail.net)

### 하천에 얽힌 옛이야기

# 순자강에 어장을 만들어 준 도깨비

전라도 곡성 땅에는 섬진강의 물줄기인 순자강이 흐릅니다.

이 순자강 근처에 있는 마을에 '마천목'이라는 소년이 살았습니다. 마천목은 부모님을 극진히 모시는 효자였습니다.

마천목은 날마다 강가로 나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물고기 요리를 좋아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한꺼번에 잡고 싶어. 하지만 강물이 깊고 물살이 세서 물에 들어가기 겁난단 말이야.'

마천목은 순자강에서 고기를 잡기엔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물보다는 낚싯대를 써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어느 날, 마천목은 강가로 나가 낚시질을 했습니다. 한나절을 앉아 있었지만 겨우 봉어 몇 마리를 낚았을 뿐이었습니다.

'큰 잉어를 잡고 싶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걸리네. 할 수 없다. 집으로 돌아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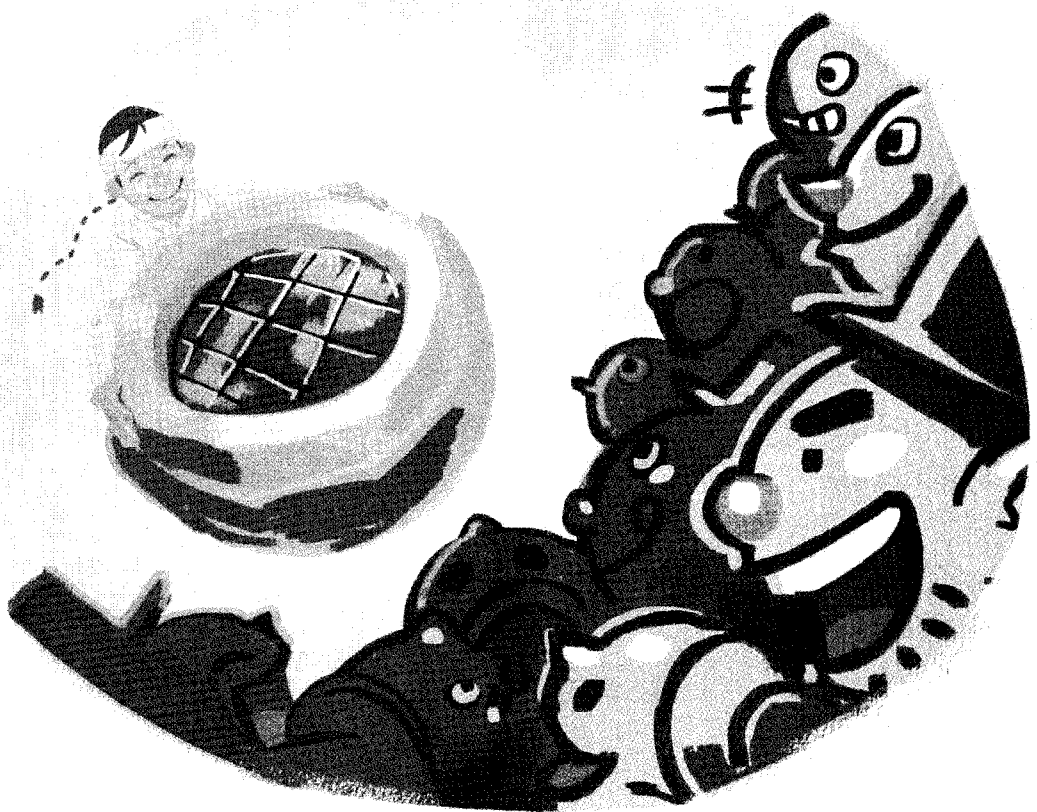
마천목은 낚싯대를 챙겨 들고 강가를 떠났습니다.

집에까지 가려면 고개를 넘어가야 했습니다.

마천목은 고개를 넘다가 길에서 이상한 돌을 주웠습니다. 어른 주먹만 한데 파란 빛이 났습니다.

'희한한 돌이네. 집에 가져가야겠다.'

마천목은 돌을 주머니에 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먹고 책을 읽으니 밤이 되었습니다. 마천목은 이불을 덮고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잤을까, 마천목은 와글와글 떠드는 소리에 잠이 깰 겁니다.

‘왜 이리 시끄럽지? 어디 불이라도 났나?’

마천목은 방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마당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왁자지껄 떠들고 있었습니다.

‘우리 동네 사람들은 아니고 모두 처음 보는 사람들이네. 무슨 일로 우리 집에 찾아와서 소란을 피우는 거지?’

마천목은 궁금한 점이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바깥이 이처럼 시끌벅적한데, 집안사람 가운데 내다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집안사람들에게는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지 않나 보지? 그런데 왜 나한테만 그 소리가 들리는 걸까?’

마천목은 궁금함을 참다못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마당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 사는 누구입니까? 무슨 일로 저희 집을 찾아오셨는지요?”

“소란을 피워서 죄송합니다. 저희는 깊은 산에 사는 도깨비들입니다.”

“예? 도깨비들이라고요? 아, 그래서 시끄러운 소리가 집안 식구들에게는 들리지 않았군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마천목 대장군님께 불일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마천목 대장군? 나는 아직 과거 시험도 보지 않은 어린아이입니다. 그런데 대장군이라니요?”

“저희 도깨비들은 앞날을 내다볼 줄 압니다. 어르신께서는 앞으로 대장군이 되어 이 나라의 큰 기둥이 되실 분입니다. 저희가 대장군님을 찾아온 것은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입니다. 오늘 길에서 주우신 파란 돌을 돌려주십시오. 그러면 대장군님의 소원을 한 가지 들어 드리겠습니다.”

“파란 돌은 왜 돌려 달라는 거죠?”

“예, 말씀드리지요. 파란 돌은 우리 대장입니다. 어쩌다가

돌로 변해 버렸는데, 우리가 가져가 신통력을 부려 도깨비로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 저희 부탁을 꼭 좀 들어 주십시오.”

마천목은 도깨비들의 청을 들어 주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 도깨비들에게 소원 한 가지를 말했습니다.

“나는 순자강에서 물고기를 많이 잡고 싶어요. 돌로 물길을 막아 물고기를 쉽게 잡을 수 있는 어장을 만들어 주세요.”

“그러지요. 한 시간 뒤에 강가로 나와 보시지요.”

말을 마친 도깨비들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습니다.

마천목은 한 시간 뒤에 강가로 나갔습니다. 그 사이에 도깨비들은 벌써 어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돌을 쌓아 물길을 막았기 때문에, 물고기들을 어장에 몰아넣어 쉽게 잡을 수 있었습니다.

‘날마다 아버지에게 물고기 요리를 해 드릴 수 있게 되었어.’

마천목은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도깨비들이 고마웠습니다.

마천목은 도깨비들에게 과란 돌을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어장을 만드느라 수고 많았어요. 내가 메밀묵을 쭈어다 줄 테니 오늘 저녁때 어장에 모이도록 해요.”

“고맙습니다.”

도깨비들은 메밀묵을 좋아하기 때문에 손뼉을 치며 기뻐했습니다.

그날 저녁, 도깨비들은 순자강 어장에 모여들었습니다. 마천목이 메밀묵을 쭈어 솥째 들고 오자, 벌떼같이 달려들었습니다.

도깨비 가운데는 조금 늦게 와서 메밀묵 맛을 전혀 보지 못한 도깨비도 있었습니다. 이 도깨비는 잔뜩 심술이 나서 자기가 쌓은 돌을 빼내 버렸습니다. 그러나 워낙 큰 어장이기 때문에 고기를 잡는데 지장을 주진 않았습니다.

도깨비와 흥정을 벌인 소년 마천목은 뒷날 도깨비들이 말한 대로 큰 인물이 되었습니다. 태조 이성계를 도와 조선을 세우고, 대장군이 되어 전라도 병마절도사의 자리에 올랐던 것입니다. 🐼